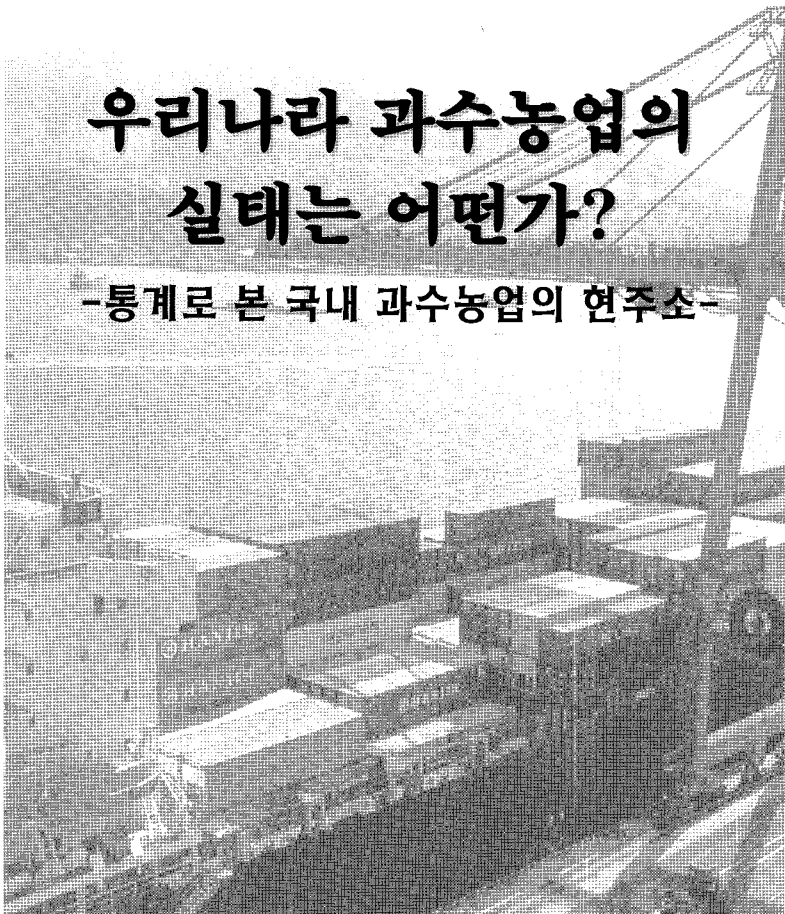


우리나라 과수농업의 실태는 어떤가?

-통계로 본 국내 과수농업의 현주소-



국내 과수농가의 경영규모는 영세하고 60세 이상의 농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농업에 의한 소득 의존도가 매우 높은 전업농이다. 따라서 과수농업의 소득감소는 곧 영농 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과수농업의 실태가 어떤지 각종 통계를 바탕으로 알아보았다. <편집자주>

우리나라 과수 재배농가의 경영규모를 보면(2000년 기준) 전체 과수농가 중 재배규모가 0.5ha 미만인 농가의 비중이 62.3%(사과 51.2%, 배 67.6%, 복숭아 76.8%, 포도 73.0%)로 경영규모가 영세한 농가가 대다수이

며 2ha 이상의 비교적 규모화된 농가의 비중은 3.3%(사과 4.0%, 배 3.5%, 복숭아 0.7%, 포도 0.5%)에 불과하다.

과수는 영년생 작물로 농가 입장에서 최소한 10~20년 이상의 장기 영농계획하에 투자를 실시

하여 영농에 임하므로 과수산업의 여건변화에 따른 영향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60세 이상의 농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과일의 과잉공급에 따른 가격하락과 소득감소는 영농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내 농가조 수입 중에서 과수 판매액의 비중이 가장 높은 농가 중 64.9%가 전업농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농업에 의한 소득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겸업농의 경우도 1종 겸업농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배를 제외한 사과, 복숭아, 포도, 자두 등 주요 품목의 재배 지역이 경북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과수농업의 성장률 둔화 현상이 발생할 경우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다른 농산물에 비해 주산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사과와 배는 추석과 설에 연중 공급량의 30~40% 정도를 출하하는 것으로 시기별 출하 집중도가 매우 높다. 예를들어 사과는 추석이 들어있는 9월의 출하 비중이 15~1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설이 들어있는 1~2월로 13~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배는 추석이 들어있는 9월에 전체 출하량의 18~21%, 설이 들어있는 1~2월에 14~21%를 차지하고 있

재배면적 규모별 농가수 비중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보고서 단위: %

	0.5ha미만	0.5~1.0ha	1.0~2.0ha	2.0ha초과
과수전체	62.3	23.7	10.8	3.3
사과	51.2	30.8	14.0	4.0
배	67.6	20.2	8.6	3.5
복숭아	76.8	18.0	4.5	0.7
포도	73.0	21.6	4.9	0.5

과수농가 경영주의 연령 구조

	농가					
	전체	과수전체	사과	배	복숭아	포도
40세미만	6.6	7.5	6.7	8.1	5.1	6.7
40~49	17.2	19.6	22.0	23.3	19.0	19.1
50~59	25.2	28.1	30.4	29.5	28.7	27.8
60~69	34.7	32.2	31.7	29.1	34.3	34.4
70세이상	16.4	12.7	9.2	10.1	12.9	11.9

과수농가의 전·겸업 비중

	과수전체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전업	64.9	79.3	66.6	68.4	64.7
겸업	35.1	20.7	33.4	31.6	35.3
1종겸업	17.9	13.5	18.7	18.5	20.2
2종겸업	17.2	7.2	14.8	13.1	15.1

지역별 재배면적 비중

지역 (면적비중)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자두
	경북(64.0)	충남(18.0)	경북(50.0)	경북(42.9)	경북(75.4)
충북(12.4)	전남(17.3)	충북(17.1)	충북(15.4)	충북(9.7)	
충남(8.5)	경북(17.1)	기타(33.0)	경기(13.0)	기타(14.9)	
기타(15.2)	경기(17.0)		기타(28.7)		
	기타(30.6)				

과일 1인당 소비량 동향

	전체	사과	배	복숭아	포도
1985	36.0	13.0	3.1	3.2	3.7
1990	41.8	14.5	3.6	2.7	3.1
1995	55.4	15.9	3.9	2.9	7.1
1996	52.3	14.2	4.7	2.8	7.8
1997	57.9	14.1	5.6	3.2	8.7
1998	49.2	9.8	5.5	3.3	8.6
1999	55.7	10.4	5.4	3.3	10.2
2000	53.4	10.3	6.7	3.6	10.2



다.

포도는 주 출하시기가 7~8월로 출하비중이 높고 9~10월이면 출하비중이 감소하여 출하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일의 소비는 주로 생과 위주로 이루어져 가공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과일류의 총생산량 중 가공 비중은 1999년 현재 5.2%에 불과하다.

식생활의 다양화, 고급화로 1인당 과일 수요는 1990년대 초까지는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사과의 경우는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다. 이는 저장 과일보다는 제철에 출하되는 과채류 등으로 소비 대체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큰 원인이기 때문이다. ●